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일시

2024.12.11.(수) 15:3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발제

1. 박경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우리나라 특수학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 -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문제, 행정업무, 민원대응 중심으로

토론

토론 1.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토론 2.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토론 3. 통합학급 교사

토론 4.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토론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토론 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토론 7. 국립특수교육원

교사노조연맹TV

유튜브 스트리밍



백전백승아TV

유튜브 스트리밍



다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김문수, 백승아

야
관
수
사
학
생
중
심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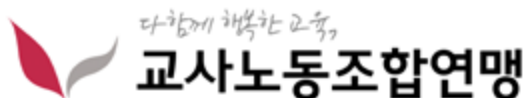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

일시: 2024.12.11.(수) 15:3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주 최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문수 백승아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일시

2024.12.11.(수) 15:3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발제

1. 박 경 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우리나라 특수학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 장 은 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 -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문제, 행정업무, 민원대응 중심으로

토론

- 토론 1.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 토론 2.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 토론 3. 통합학급 교사
- 토론 4.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 토론 5.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토론 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토론 7. 국립특수교육원

교사노조연맹TV
유튜브 스트리밍



백전백승아TV
유튜브 스트리밍



다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김문수, 백승아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

2024.12.11.(수) 15:30~17:3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프로그램 일정

시간	순서	소요	비고
15:30 ~15:40	사회자 인사 및 진행 안내	1'	
	개회 및 국민의례	1'	
	인사말 - 교사노동조합연맹, 국회의원 김문수, 백승아	8'	
	장내 정돈 및 휴식	5'	
15:40 ~16:10	발제	30'	사회: 이선희 (교사노동 조합연맹 정책처장)
	발제1. 우리나라 특수학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경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6:10 ~17:20	발제2.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 -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문제, 행정업무, 민원대응을 중심으로 ▣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70'	
	지정도론		
	1. 김현희 (서울 ㄱ중학교 특수교사)		
	2. 김미선 (강원 ㄱ초등학교 특수교사)		
	3. 박병찬 (서울 ㄱ초등학교 일반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4. 김 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5. 이주욱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		
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7.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원)			
17:20 ~17: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0'	
17:30	폐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안녕하십니까.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오늘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학급을 둘러싼 교육 현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故 인천 학산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은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 특수교육의 현실은 특수교사가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이고 교사의 안전마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급격히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과밀 학급, 교육 예산 부족 등 특수학급의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과 대책을 논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수교육은 개별 학생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도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국회,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 특수교육의 발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가 특수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송 수 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문수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차별 없는 특수교육 실현을 논의하는 「국가 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해주신 백승아 의원님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1조 1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계층 간 소득별 교육격차는 크고 장애로 인해 교육 소외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8만 7278명, 2024년은 11만 5610명으로 무려 32.5%가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 학급 수는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대책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히, 과밀학급과 특수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도 특수교육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헌법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적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12.11.
국회의원 김 문 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특수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외된 약자를 챙긴다는 복지와 시혜의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교육이 지향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 모두를 위한 교육,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형태가 특수교육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에서도 통합교육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학습하고 생활하며, 학령기 이후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사회에서 함께 민주시민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상황 속에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애나 특수만 붙으면 모두 특수교사에게 떠밀어지는 관례, 장애학생을 같은 학생으로 여기기보다 별개의 특별한 존재로 분리해 바라보는 시각 등, 통합교육의 취지가 실현되기보다는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책무성을 떠넘기는 형태로 운영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결국 우리는 작년 서이초에 이어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선생님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발제를 위해 애써주신 대구대 박경옥 교수님과 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특수교사 김현희 선생님과 김미선 선생님, 통합교사 박병찬 선생님,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김연희회장님,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국립특수교육원,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12.11.

국회의원 백승아

발 제

■ 발제문 1

우리나라 특수학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 발제문 2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

-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문제, 행정업무,

민원대응을 중심으로

-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우리나라 특수학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 및 여건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하다

2024. 12. 11.(수)

박 경 옥
(대구대학교)



목차

1. 국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를 중심으로

2. 통합교육 관련 영국의 교사제도 탐색

3. 통합교육 관련 일본의 교사제도 탐색

4.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제도가 주는 시사점



1

국내 특수학급 운영 현황

1. 특수교육의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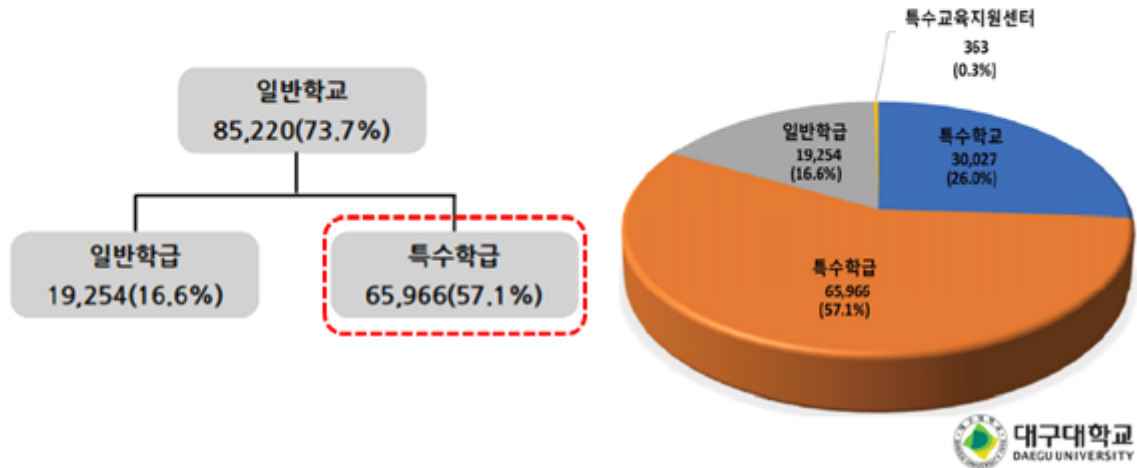
1) 특수교육의 법적 근거

헌법 제 31조	제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12조(학습자)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학습자) 2항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2.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배치 현황

- 2024년 특수교육 통계
특수교육대상자: 115,610명



2.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배치(특수학급) 현황

- 1971년 국내 최초 대구 칠성초등학교 지적장애 특수학급 설치
-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
"특수학급"을 통합교육을 위한 것으로 명시

특수학급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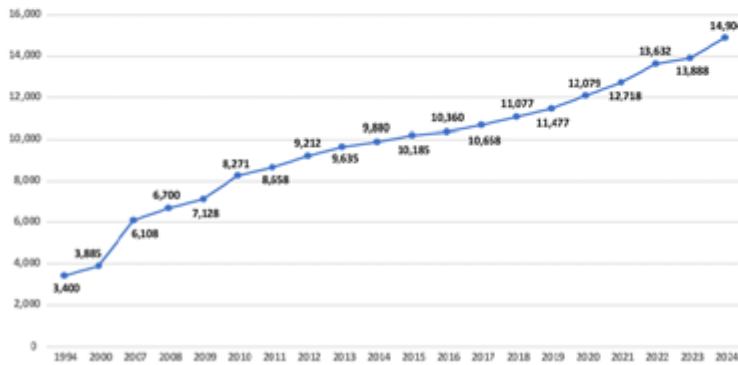


2.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배치(특수학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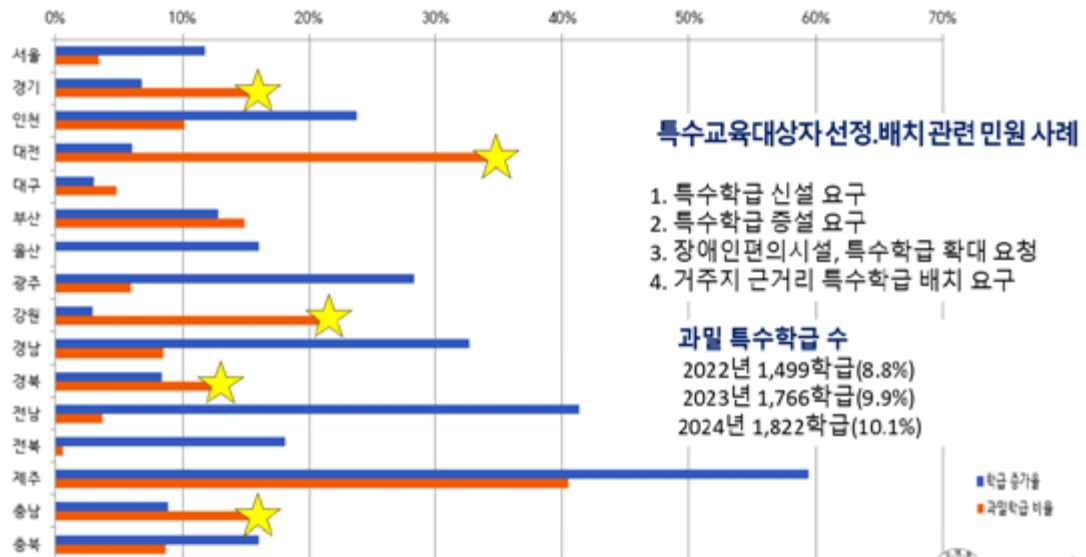
-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정의)

“특수학급”을 통합교육을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특수학급에 교사 배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수학급 교원 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원 배치기준: 학생 4명마다 1명



2.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배치 현황(과밀학급 현황)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관련 민원 사례

1. 특수학급 신설 요구
2. 특수학급 증설 요구
3. 장애인편의시설, 특수학급 확대 요청
4. 거주지 근거리 특수학급 배치 요구

과밀 특수학급 수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2024년 1,822학급(10.1%)

■ 학급 증가율
 ■ 과밀학급 비율



출처: 이정준·박소영·서용선(2022). 전국 특수학급 과밀 배치 현황 분석을 통한 한국 통합교육 정책과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통합교육연구, 18(2), 1-27.

2.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배치 현황(내적, 외적 요인)

- 국내외 동향 및 선행연구 교육종단연구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요인 추출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4).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요인 분석 연구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수) 추정치
 현재 2%(약 11만여명)→ 2052년까지 5.57%(약 17만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일반학교 배치학생의 수: 12만명, 특수학급 배치 학생의 수는 97,000명으로 추산할 수 있음

내적요인	외적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체 및 자폐성장애 학생의 증가 • 영유아 및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특수교육 여건 변화 요인 • 장애 또는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 1인당/ 특수학교(급) 1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 초혼연령, 첫째아 어머니의 평균 출산 • 건강에 대한 관심과 태도 변화 • 의료 기술 발전과 생존률의 증가 • 사회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 • 생태학적 환경의 변화 등의 요인

4. 특수학급 운영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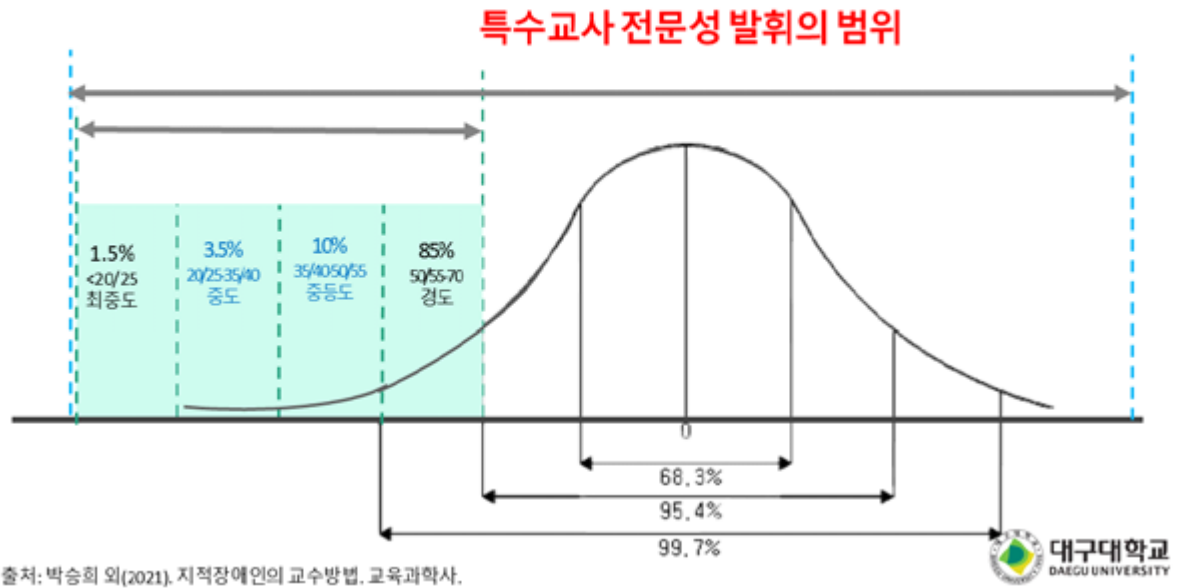
- 최적화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경로로서 특수학급의 위상과 입지 확보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설치와 그 수의 증가가 특수교육의 발전사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이정표임
- 하지만 통합교육 맥락에서 특수학급의 정체성과 위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통합교육의 질적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정책 필요
-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학급의 역할과 기능은 통합교육에 대한 미흡한 인식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의 한계에 봉착

박승희(1999), 정동영(2013), 강은영(2022), 서효정 외(2022)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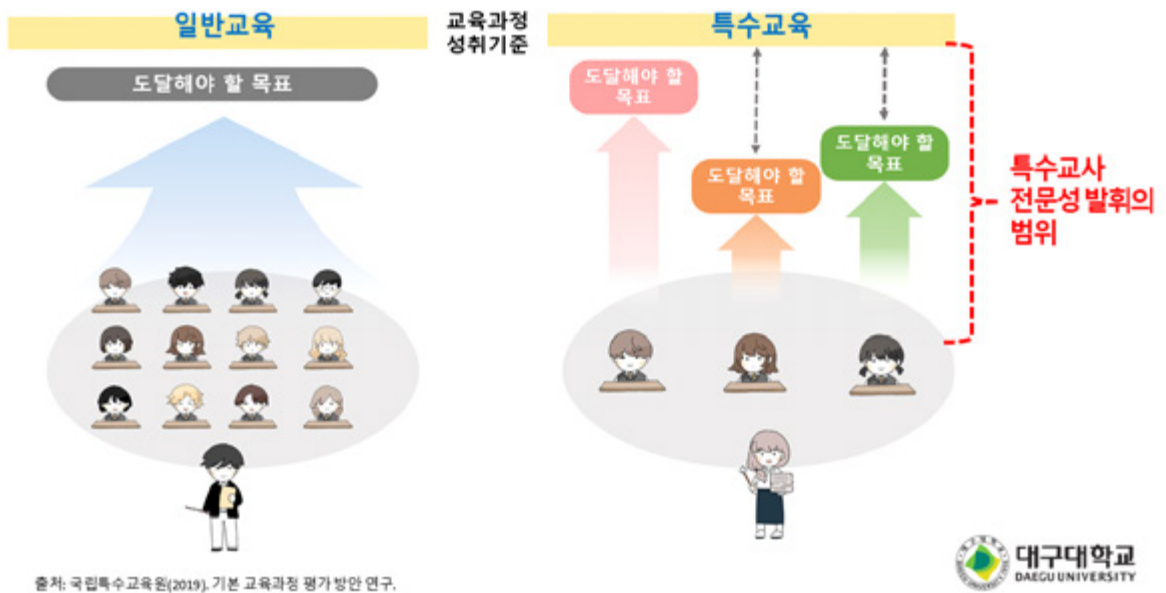
- ✓ 제1의 특수교육 배치로서 최적합한 교육의 질 제공의 경로이며 모든 장애학생에게 최적의 통합교육 기회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를 맞고 있으나 국내 특수교육 전달체계 모형 내에서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학생 배치제도는 자리잡고 있지 못하고, 배치 의사결정 또한 매우 경직되어 있음
- ✓ 특수학급들 간의 교육의 질 상향 균등화 및 일반학급 및 일반교사의 역할과 기능에서의 변화 요구됨(특수교육의 전문성 제고 및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공유된 책무성 강화 필요)
- ✓ 특수학급 교사의 역할을 독립된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로서의 역할과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성 강조



3.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교사



4.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교사



5. 성공적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의 변화

- 통합교육에 대한 가치와 책무를 공유하는 학교 문화 재구조화: 성공적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교사, 전문가 및 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일반/특수교사의 지원 전문성 강화: 통합교육 맥락에서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필요
- 일반/특수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및 교육평가 역량 강화
- 특수학급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안 모색 필요: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역할 배분 필요
- 특수교사의 심리적 소진 상태 개선 방안 모색



2

통합교육 관련 영국의 교사제도탐색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를 중심으로

1. 영국 특수교육

- 영국의 특수교육은 다층적 지원체계를 갖춰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단계: 보편적 지원 (Universal Support)	2단계: 추가 지원 (Targeted Support)	3단계: 전문 지원 (Specialist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화된 교수법: 학생의 능력과 학습 스타일에 맞춰 수업을 조정 적절한 환경 조성: 교실 환경조정 기본 학습 자원 제공: 과서, 학습 도구, 온라인 자료 등을 제공하여 접근성 확보 정서적 및 사회적 지원: 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활동 및 학생 간의 유대감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학습 계획(ILP):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를 반영한 학습 계획 수립 및 지원 방법 명시 소규모 그룹 수업: 필요에 따라 소그룹으로 구성하여 집중적 수업 제공 특별한 수업 자료: 시각 자료, 실물 자료 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자료제공 추가 지원 인력 배치: 보조교사나 특수 교육 전문가가 학생을 직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상담 및 치료: 언어 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 치료사 등의 전문가가 학생 직접 지원 특별 보조공학: 필요에 맞춰 제작된 보조기기 제공 전문 교육 프로그램: 학교 밖 특수 프로그램 참여 및 특정 기술이나 지식 향상 지원 정기적인 평가 및 진단도 모니터링: 학생의 발전 상황을 정기적 평가 및 지원 내용을 통해 최적 학습 환경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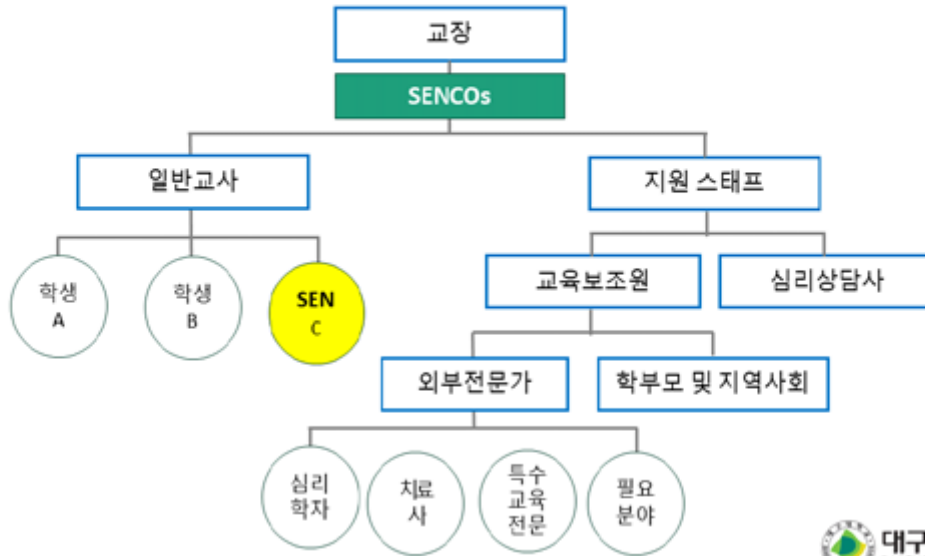
1. 영국 특수교육 코디네이터(SENCOs) 소개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NPQ) for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 이하 SENCOs)

- NPQ 과정은 SENCO가 학교 내에서 효과적으로 특수교육요구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 정책과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모든 학교에 지명되고 훈련된 "특수교육 요구자를 위한 코디네이터"(SENCOs)를 배치함
- "SENCOs"는 단위 학교 내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효과적으로 교육적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됨
- NPQ 과정은 SENCOs가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학습 경험을 최적화하여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둠
 - ✓ 특수교육 이론적 배경: SEN의 정의와 관련 정책, 법률에 대한 교육
 - ✓ 특수교육 실천적 기술 개발: 교사와 협력하여 개인별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아동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 습득.
 - ✓ 리더십 및 관리: 학교의 교육 환경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리 기술 습득



SENCOs의 학교내 위상



2. NPQ SENCO 코디네이터의 역할

NPQ는 SENCOs 의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의 질을 향상에 중요한 역할 수행

- **학생의 평등한 기회 보장:** SEN을 가진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의 실현.
- **교육의 질 향상:**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이 SEN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교육 전반의 질적 향상 도모
- **교육정책 준수:** 교육부의 정책과 법률을 준수하여, 모든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속적으로 제공.
- **사회 통합 촉진:** SEN 아동이 통합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포용성 촉진



2. NPQ SENCOs의 역할

- **특수교육 요구학생 선별 및 평가:** 아동의 학습 및 발달에 대한 요구를 조기에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 **지원 및 조정:** 교사 및 다른 교육 전문가와 협력하여 SEN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한다.
- **교육 프로그램 관리:** 업데이트된 연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부모 및 커뮤니티 참여 촉진:** 아동의 학습 지원을 위해 부모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 사회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돕는다.
- **전문성 개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SEN 관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SENCOs는 모든 아동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를 통해 학교의 포용성을 높인다.



3. 일반교사와 NPQ SENCO 간의 협력

- **학생정보 공유:** SENCOs는 일반교사와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아동의 학습 및 발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각 학생의 필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및 자원:** SENCOs는 일반교사가 SEN 아동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자원(예: 교육 자료,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함. 이러한 지원은 일반교사가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 **교육 및 훈련:** SENCOs는 일반교사에게 특수 교육 필요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SEN 아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향상에 기여
- **개별화교육계획(IEP):** SENCOs는 일반교사와 협력하여 각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계획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일반교사는 학생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수업 전략을 조정하여 적용
- **성과평가 피드백 시스템** SENCOs는 일반교사에게 아동의 학습 진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고,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상기시키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



4 일반교사와 SENCo 간의 협력시 중요한 요소

일반교사와 SENCOs 간의 협력은 아동의 학습 성과와 복지 극대화에 있음

- **명확한 소통 경로:** 일반교사는 아동의 수업 참여도 및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SENCOs에게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조정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학생중심 목표 설정:** 일반교사와 SENCOs는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 경로를 위한 공동 목표 설정하고 필요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공동 목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짐
- **상호 존중:** 일반교사와 SENCOs 간의 신뢰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두 역할은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전문성 개발교육 및 훈련:** SENCOs는 일반교사에게 특수 교육 필요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성과 평가 및 반영:** 협력의 결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반영과 평가를 통해 다음 교육계획에 학습 결과 및 환경 개선사항을 반영함



3

통합교육 관련 일본의 교사제도탐색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1. 일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일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도입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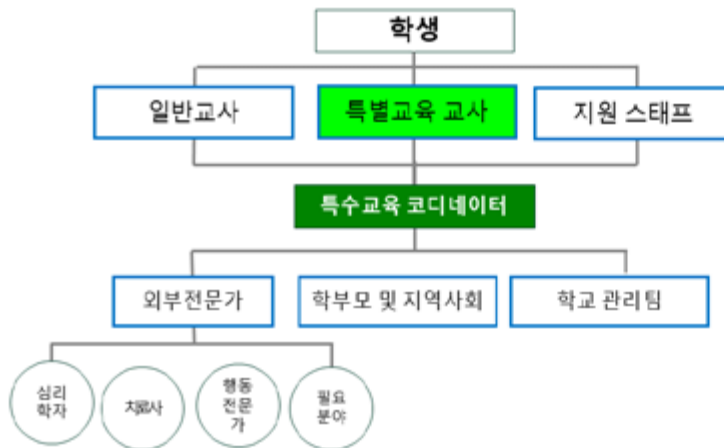
일본에서 특수교육 코디네이터(SENCO)의 도입은 여러 사회적, 교육적 필요와 관련된 변화에 맞게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 **SEN 아동의 증가:** 일본 내에서 특별 교육 필요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
- **다양한 요구:** 학생들이 제각기 다른 교육적 필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적용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
- **법적 제도 개선:** 일본 정부는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지원 강화. 법취지에 따라 학교에서도 장애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
- **전문 지식 요구:**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지원이 요구 및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
- **일반 학교 내 통합의 실제성 강화:** 일본에서는 일반 학교 내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 교육이 점차 확산되면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일반 교사들을 지원자의 역할 필요



1. 일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의 위상



특별교육 교사

- 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와 수업 방안을 계획하고 직접 실행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SENCO)

- 학교 내에서 특수 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정
- 일반 교사 및 특별교육 교사를 지원 역할 수행
- SENCO는 학생의 학습 요구를 평가하고, 교육 계획(IEP)을 수립 및 관리하며, 전체적인 교육 환경을 조정하는 데 중점



4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제도의 시사점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

1. 특수학급 교사들이 인식하는 위기

- 과중한 업무 부담
-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재구성의 한계
-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한 인력 부족
- 전문성 부족
- 학생 및 가정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회적 편견
-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의 부족
- 직업적 자부심 및 보상 문제

개인의 역량에
과중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낮은
교수효능감 및
소진



2.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 특수교육의 본질 실천: 개인화된 교육 지원 강화

- 영국과 일본의 SENCO는 각 학생의 요구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 계획(IEP)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개별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맞춤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2. 다학제적 협력 체계 구축

- **전문 팀 구성 및 협력 촉진:** 영국과 일본의 모델은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력과 협력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에서도 SENCO 체계를 도입하면, 교육, 심리,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2.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3. 교사 전문성 강화

-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영국의 SENCO는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연수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특수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특수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최신 교육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멘토링 및 지식 교류:** SENCO가 경험이 풍부한 교사로서 멘토 역할을 수행하여, 현업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규 교사 및 지원 인력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4.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체계적인 정책 마련:** 영국과 일본의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모델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고 체계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SENCO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빈약한 관련 법규와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행동 관찰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3. 위기의 특수학급을 구하려면...

- 1) 특수교육 관련 법 준수: 법에 근거한 학생 정원 준수 및 특수교사 확대
- 2) 교육 재정의 확충
- 3)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교원 배치 및 운영 지침 명시
- 4) 특수교육 관련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의 강화
- 5)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체계 강화: 학생교육의 책무성 공유
- 6) 특수학급 업무 처리를 위한 행정지원체계 재구조화
- 7) 가족 및 커뮤니티와의 연결 강화를 통한 장애 및 특수교육의 올바른 이해



맺음말...

$$1^{365} = 1$$

$$0.99^{365} = 0.026$$

$$1.01^{365} = 37.78$$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

-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문제, 행정업무, 민원대응을 중심으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2024.12.11.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장은미

어느 특수교사의 결코 특수하지 않은 죽음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421.html

어느 특수교사의 결코 특수하지 않은 죽음

2024년 11월5일 저녁, 인천시교육청 앞에 차려진 분향소에 특수교사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10월 2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추모하는 자리였다. 그와 동료였다든 같은 교사는 분향소에 도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다른 교사에게 쓰러지도 안겼다. 100여 명의 교사는 한바탕 뒤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육청을 에워싸고 길게 줄지어 섰다. 도성문 인천시 교육감이 대책회의를 하는 동안 교사들은 차가운 교육청 로비 바닥에 앉아 차례로 마이크로를 잡았다.

"한번은 (장애학생에 아동이 함께 수업하는) 통합학급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 다'라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거부해, 5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복도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그 아이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일반학급 교사였지만 그 날 저의 반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그때부터 통합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과밀인 특수교과반의 기간제 선생님이 일제히 탄 아이, 자제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 경련으로 쓰러지던 아이 등 여섯을 혼자 교육하느라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제 두 눈으로 지켜본 상태였으니까요." 이어 무개유치원 일반학급 교사

한국일보 PICK - 8면 1단 - 2024.10.30. - 내이게뉴스

[단독] 내년 결혼 앞둔 30대 특수교사 사망.. '중증 학생 맞춘 과..
인천의 초등학교 소속 30대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특수교육계는 이 교사가 학생 수가 넘쳐 과밀을 초월한 과밀 특수학급을 혼자 달아 일부 부담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교원에 일부 학부로부터 과도한 민원을 ...



영남일보 PICK - 2024.10.30. - 내이게뉴스

인천서 초교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 특수교육계 '격루 시달려'
'힘들 조과' 특수학생 담당... 교육 당국 '연속 3명 추가 배치해 지원했다'
인천 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상에 뒤늦게 알려졌다. 30 일 인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에 ...



매일경제 PICK - 2024.10.30

인천서 특수교사 극단적 선택.. 교육, 진상 규명 촉구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한국교육과 연합교총이 진 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의 파츠명 조임 교사(당 A 교사)30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고, 학교와 함께 학급 수 증설 등 ...



디지털타임스 PICK - 2024.10.30. - 내이게뉴스

인천서 30대 초교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 교육계 '격루 시달려'
교사 1명이 '힘들 조과' 특수학생 담당 교육 당국 '연속 3명 추가 배치해 지원했다'
인천 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상에 뒤늦게 알려졌다. 30 일 인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에 ...



어느 특수교사의 결코 특수하지 않은 죽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3014100003844?did=NA>

한국일보- 중증장애 많은 과밀학급서 과중한 업무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1249?influxDiv=NAVER>

JTBC- 격무에 스트레스, 몸 망가져 병원비 수백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536835/N>

EBS-인천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 특수교육 현실은?

특수학급의 현실

1. 과밀학급
2. 특수교사 부족
3. 일반학급배치 특수교육대상자
4. 비공식적 전일제 특수학급 배치
5. 주당 수업시수
6. 지원인력 채용 및 관리 등 업무
7. 공격(돌발)행동 지원 미비
8. 민원대응 시스템 부재
9. 과도한 행정업무

특수학급의 현실

1.과밀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22년 10만 3,695명

2023년 10만 9,703명

2024년 11만 5,610명

백승아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 요구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수학급 18,562개 중 1,882개(10.1%)의 특수학급이 과밀학급

특수학급의 현실

1.과밀학급

[표6] 최근 5개년, 시도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전체 학급 수	과밀 학급 수	비율
서울	2070	442	21.4	2115	406	19.2	2176	230	10.6	2236	265	11.9	2279	273	12.0
제주	222	43	19.4	239	50	20.9	240	59	24.6	257	71	27.6	276	75	27.2
합계	1566	1610	10.3	1621	1436	9.2	1701	1499	8.8	1759	1766	9.9	1892	1882	10.1

* 자료 : 교육부

* 단위 : 명, %

특수학급의 현실

2. 특수교사 부족

2024년 특수교원: 27,0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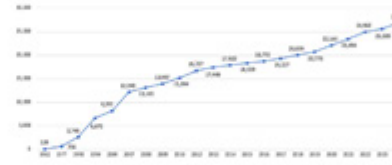
특수학교 교원수: 10,441명

특수학급 교원수: 14,9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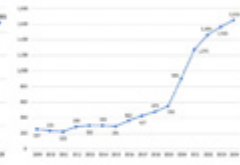
지원센터 교원수: 1,656명

■ 특수교육 교원

○ 전체 교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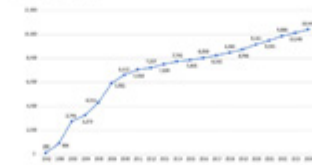


○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교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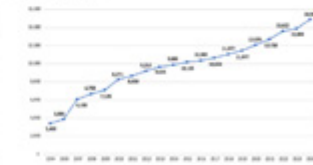


* 전체 교원 수 = 유치원 교원 수(2020년) + 초·중·고교 교원 수(2024년) + 특수교육지원센터 정규교사 수(2024년)

○ 특수학교 교원 수



○ 특수학급 교원 수



특수학급의 현실

2. 특수교사 부족

2024년 특수교원: 27,00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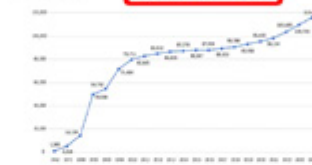
특수학교 교원수: 10,441명

특수학급 교원수: 14,904명

지원센터 교원수: 1,6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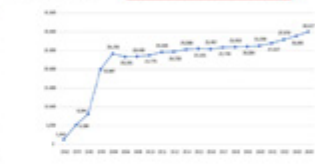
■ 특수교육대상 학생

○ 전체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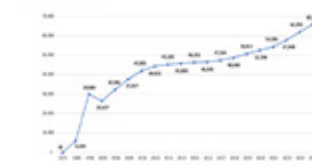
전체 학생:교사 = 4.28 :1

○ 특수학교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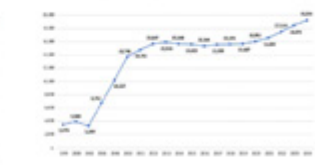
학교 학생:교사 = 2.87 :1

○ 특수학급 학생 수



학급 학생:교사 = 5.14 :1

○ 일반학교(전일제 통학학급)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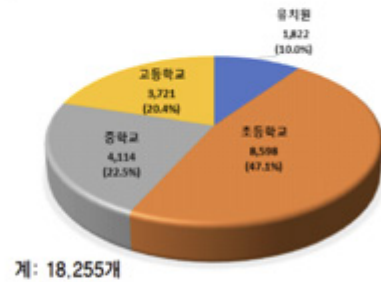
특수학급의 현실

3. 일반학급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전 계	8,352	18,255	19,254
유치원	1,376	1,822	2,038
초등학교	3,601	8,598	8,925
중학교	1,951	4,114	4,331
고등학교	1,424	3,721	3,960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수



7

교육부- 2024년 특수교육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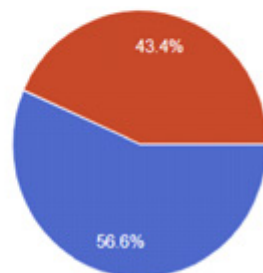
특수학급의 현실

4. 비공식적 전일제 특수학급 배치(2024.4.9.~ 전국특수교사노조 설문)

전일제 특수학급 학생(기준: 주 5시간 이하 통합)을 지도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자트 복사

응답 786개



- 예 (전일제 특수학급 학생 지도 경험 있음)
- 아니오 (전일제 특수학급 학생 지도 경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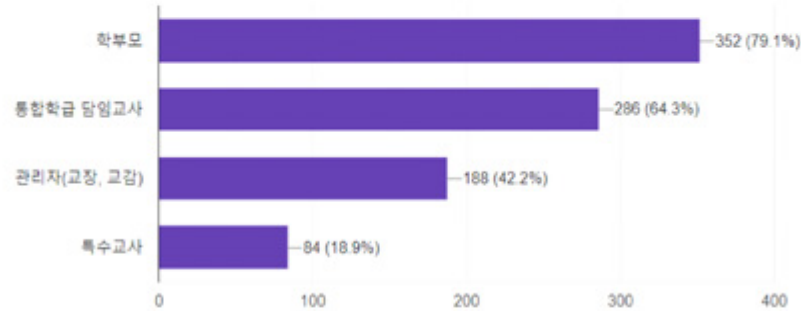
특수학급의 현실

4. 비공식적 전일제 특수학급 배치(2024.4.9.~ 전국특수교사노조 설문)

전일제 특수학급을 요구한 교육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자트 복사

응답 445개



특수학급의 현실

5. 주당 수업시수

- 과도한 수업시수의 원인
 - 과밀학급으로 학생 당 수업 증가
 - 학부모나 관리자 등의 전일제 특수학급 수업 요구
 - 공격(돌발)행동을 인한 수업 방해 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
 - 중증/중도중복장애로 인한 통합교육의 어려움
- 비공식적 수업 시간 운영 지양
- 공식적 시간표 운영에 따른 수업시수 확보
- 행동중재 등으로 인한 유동적 수업에 대한 시수 인정
- 교육활동침해 행위등으로 인한 분리 수업시 공간 확보(심리안정실)

특수학급의 현실

6. 지원 인력 채용 및 관리 등 업무

- 특수교육실무사
 - 특수학교: 행정실 담당, 특수학급: 특수교사 담당
 - 급여까지 특수학급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
- 사회복지요원
 - 사회복지포털 관리, 복무 관리, 피복비나 보험까지
 - 사회복지요원 지휘·감독·권한 및 책임: **복무기관의 장**
- 자원봉사
 - 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만 편성
 - 자원봉사의 채용, 관리, 감독, 행정업무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수학급의 현실

7. 공격(돌발)행동

- 특수학교
 - 학교차원의 행동중재지원팀 구성
 - 학생의 공격(돌발)행동시, 옆반이나 전담교사와 협업 가능
- 특수학급
 - 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지원팀
 - 학생의 공격(돌발)행동시, 특수학급 교사가 감당
 - 즉각적인 행동중재의 어려움
 - 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는 행동중재 시간

특수학급의 현실

8. 민원대응시스템 부재

- 학교장 책임의 민원대응시스템. 특수교사는?

"특수학생은 특수교사가 알아서 하세요."

"특수교사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

"장애학생은 원래 그런거니 그냥 특수교사가 미안하다고 하세요"

- 지원센터에서의 민원

"어머니에게 전화왔어요. 학급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으니 선생님께서 그냥 참으세요."

"예산 드렸잖아요. 다른 곳은 다 잘 하고 계세요"

특수학급의 현실

9. 과도한 행정업무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책 제안

01 학급당 학생 정원 준수

02 특수교사 증원 필수

03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금지

04 완전통합학생의 특수학급 정원 산정

05 주당 수업시수 기준 필요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책 제안

06 지원인력 업무 경감(채용-지원센터, 관리-행정실)

07 행동중재매뉴얼에 공격(돌발)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기재

08 민원대응 시스템 마련

09 행정업무 경감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책 제안

가장 중요한 건 법령을 지키는 일부터!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책 제안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4-6-6-7)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책 제안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제 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전국특수교사노조의 정책 제안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토론

- 토론문 1. 김현희 (서울 1중학교 특수교사)
- 토론문 2. 김미선 (강원 춘천 1초등학교 특수교사)
- 토론문 3. 박병찬 (경기 1초등학교 일반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부위원장)
- 토론문 4.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 토론문 5.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
- 토론문 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토론문 7.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교육연구관)

특수교육에는 교육이 있는가?

-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의 특수교사 법적 배치 기준을 지키고,
모든 과밀학급에는 특수교사 충원 배치해야 합니다. -

김현희 (서울 7중학교 특수교사)

나는 서울의 성북강북 관내 7 공립중학교에서 2018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다. 특수학급 1학급에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2018년에는 16명, 2019년에는 17명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두자릿수의 과다 과원배치 중이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특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1학급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 1명만 배치 되었다. 그 특수교사 1인이 바로 ‘나’다. **2018년도에는 16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8명 특수학급+8명 완전통합)으로 교육청은 법을 위반해 가며 과다 배치하였다. 이중 4명이 심한 뇌병변의 휠체어 이용학생이다.** 특수학급에 1학급에 배치된 8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중에는 6명의 중증장애학생과 이중 2명은 중도중복장애학생(휠체어 이용 심한 뇌병변+심한 지적장애인)이다. 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경우 1.5배의 인원으로 산정하기에 특수학급 1학급에 10명이 배치된 상황이다. 게다가 완전통합된 8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학생이 2명, 심한 청각장애 학생이 1명으로 3명의 중증장애 학생이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과다배치 및 중증장애 학생 배치에 대해 1)공문과 면담을 통해 특수교사 충원배치를 간곡히 호소하며 요청하였지만 다만 “안타깝네요. 힘들겠어요.” 라고만 말할뿐 어떠한 물적, 인적 지원도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요청을 비웃기라도 한 듯 **2019년도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더 늘어났다. 즉 기존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심한 뇌병변장애학생 4명에 더해 보행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지체장애 학생이 새로 들어와 총 8명의 지체장애 학생을 배치하였고 총 17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었다. 이중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3명이고 실질적으로는 19명의 학생이 배치된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해를 거듭해도 나아지지 않았고 매년 10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하였다. **올해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져서? 11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에 특**

1) 공문은 수차례 보냈고 이중 2018년 7월 3일자와 2019년 4월 8일자에 보낸 공문 내용을 붙임에 실었습니다.

수학급 학생 8명 배치 중 5명이 중증장애학생이고 이중 1명은 중도중복+중증장애학생이다.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추가배치를 교육청에 요청하였지만 복사-붙여넣기 마냥 인천광역시교육청과 동일한 이유 즉 특수학급에 9명이 안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5년 내년에는 더 심각하다. 입학예정 5명을 포함하면 특수학급 7명, 일반학급(완전통합) 6명으로 총 13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 학생 1명이 본교 특수학급 배치를 위해 심사청구 후 행정심판을 준비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특수학급 8명+완전통합 6명으로 14명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5명의 학생이 중증장애학생이고 이중 1명이 중도중복장애(휠체어 이용 심한 뇌병변+심한 지적장애인)학생이다.** 얼마 전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인천 특수교사의 절망 그대로였다. 나 역시 죽을 것 같다고,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교육청에 요청해도 특수교사 추가배치는 어렵고 대신 특수학급 증설을 하면 된다는 답변이었다. 그런데 일반학급 1학급에 30여명이 넘는 이미 과밀학급이고 학교 장소가 협소하여 특수학급을 증설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전혀 없었다. 학생들은 운동할 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여 체육 수업을 받을 정도로 학급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교육청은 전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중학교는 1학급에 6명의 특수교육대상자(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경우 1.5배 인원 계산)라는 배치 법적 기준을 교육청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는 장애학생에 대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장특법에 학급 인원 기준과 특수교사 배치 기준은 학생들의 학생 개개인별에 따른 특수교육적 요구뿐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의미 있는 학교 생활 및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의 철학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당연한 수업권을 빼앗은 것이다.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으로한다라는 법적 기준에 의하면 2018년, 2019년도의 경우 4명에서 5명의 특수교사를, 올해는 3명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만 했다. 그런데 특수교사 1인만 배치했다? 이는 죽으라는 말과 같았고, 교육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교육청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잔혹했다. 16명의 특수교육대상자는 16개의 반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비장애 중심의 환경과 문화는 장애 학생의 경우 장애 특성상 부득이 교우관계의 어려움과 다양한 행동문제가 발생한다. 수시로 갈등과 폭력, 수업방해행동, 이로 인한 일반학급 학부모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 민원 등 거의 매일 발생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특수교사는 정신을 못차릴 정도다. 그 외 장애학생의 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실무사,

단기 보조인력 등)관리(채용 급여 등 행정적 업무, 이들에 대한 업무일지와 적절한 업무 지시 등의 업무 등)업무는 어마어마하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6명이면 16개의 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반 모두의 상황을 꿰고 있어야 한다.

올해 우리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인력은 6명이다. 하지만 지원인력은 특수교육 전문 인력이 아니기에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특수교육적 지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기에 상시적으로 장애학생 지원 시 주의점과 교육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근태관리, 지원인력 채용과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도 상당하다. 그리고 학사 일정이 바뀔 때마다 반 시간표 변동이 될 때마다 이를 수시로 지원 인력과 소통해야 한다.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속한 8개의 반의 일정과 때로는 완전통합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3개의 반에도 신경써야 되는 상황에 생긴다. 총 11개의 반마다 변하는 상황을 다 체크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지원인력에게 알리고 이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자질이 신경써야 할 일들이 상당하다. 특수교사 본인이 특수교사인지 인력관리 행정실무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러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도 특수교사 충원뿐 아니라 여러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 배치도 절실하다. 장애학생별 보조공학 신청 및 관리, 편의시설 점검, 수시로 발생하는 학부모 민원과 이에 대한 중재 등 이런 민원 처리와 행정적인 업무만으로도 머리는 하에지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하였다. 수업준비는 전혀 할 틈이 없었고, 내 머릿속은 당장 처리해야 할 업무로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학생들은 크고 작은 고민으로 상담하고 싶어도, 늘 컴퓨터와 씨름하며 행정업무 처리에 바쁘다 보니 “선생님은 늘 바쁘세요”라며 학생들은 아쉬움을 삼키며 물러섰고, 따뜻한 눈길조차 줄 수 없는 숨막히는 일터미에 미안함과 자괴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스스로 자문하는 시간이 많았다. “나는 교사인가? 아니면 나는 민원처리 담당자인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인가? 왜 교사에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인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한 교육청이 원망스럽다. 수시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민원처리(예, “사회복무요원이 너무 불성실합니다. 시간표 변동이 되어 2교시가 체육시간인데 지원인력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 애만 덩그러니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하는데 지원인력이 결근하여 제때 화장실을 가지도 못했어요. 이를 관리감독하는 선생님 책임 아닌가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니 선생님을

상대로 고발이 가능하다네요”. “수행평가에 대해 장애학생들의 장애를 고려하여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과목별로 마련해 주세요.”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화장실은 더 설치하고, 모든 공간의 단차들은 경사로 설치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휠체어 이용하는데 1중학교로 입학할 문의하니 지체장애학생이 8명이라는 이유로 특수교사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는군요. 교육청에 민원 제기합니다.” 등등등 수많은 민원제기와 계속 밀려드는 행정 업무에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었다. 인천의 특수교사도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을 것이다. 나도 그렇다. 다만 특수교사라는 사명감으로 간신히 버텼을 뿐 대신 내 몸과 정신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했다. 갑상선 항진증으로 몇 년간 고생하였고, 초과근무에서 얻은 수당은 약값으로 그 이상 나갔다. 간신히 갑상선 항진증을 치료하였더니 계속되는 야근과 업무과다로 작년 11월 독감에도 단 하루의 병가조차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되다 보니 한달 이상 심한 기침으로 고생, 그 이후에는 갑작스레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전신에 알레르기가 생겨서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도무지 낫지를 않았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고 담당 의사는 최소한 5년 이상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지금까지도 병원에 다니며 매월 비급여보험으로 30여만원이 주사값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향후 4년간 더 다녀야 한다. 노동권 및 건강권이 위협받는 특수교사의 처지가 참으로 열악하다. 버티기 위해, 살기 위해 지난 2년간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비싼 한약도 먹고 있다.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과 지원은 참으로 많은 역량과 일이 요구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는 다양한 갈등 및 문제상황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됨을 의미한다. 본교를 시작한 과밀학급이 주변의 중학교에도 과밀이 시작되어 인근 6개의 학교의 특수학급이 과밀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립학교 기준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60여개이지만 중학교 특수학급은 20여개로 약 3배 차이가 난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젠 우리 지역의 모든 중학교의 특수학급이 과밀이 될 예정이다. 특수학교는 중증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급은 보다 경증의 장애학생이 배치된다는 암암리의 공식이 깨진지 오래다. 아직 학교 현장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다양한 중증 장애학생들도 일반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장애종류와 정도를 떠나 이들 역시 통합된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배움과 학교 생활

을 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다양한 차이를 가진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배려하고 공감있는 교실, 통합교육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헛된 이상일까? 특수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이 꿈을 위해 뒤늦은 나이에 특수교육 현장에 들어왔지만 상처와 고통으로 몸부리친 나날이었다. 경쟁위주의 교육 상황에서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학생들이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적 역량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학급에서의 교육뿐 아니라 통합 상황에서의 통합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방향 역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 미래교육’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특법에서 정한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이상 ‘빛좋은 개살구이자 헛된 공염불’일 뿐이다. 일반학급이든 특수학급이든 특수교육대상자 모두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의 법적 기준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장치다. 그리고 인적, 물질적, 행정적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1중학교를 떠나 정기전보로 내년에는 다른 학교로 가게된다. 누군지 모를 후임 교사에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고통을 물려주는 것 같아 무력하고 미안하다. **왜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 제 2의 인천 특수교사 사건이 나올까봐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떠나는 나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

난 교사이고 싶다. 난 수업하고 싶다. 난 교육하고 싶다.

왜 교사로서의 당연한 역할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첨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여러번 보낸 공문 중 2건의 공문 내용을 첨부합니다.

과다 배치된 완전통합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요청

ㄱ중학교(2018. 7. 3.)

□ 관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②항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 ①항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요청 사유 및 내용

1. 요청 사유

가. 본교에는 특수학급 1학급에 특수교사 1명, 보조인력 4명(특수교육실무사 2명, 사회복지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특수교육대상학생 16명(완전통합 8명, 특수학급입급 8명)이 재학 중이며,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다양한 현안이 수시 발생하고 있어 특수교사 1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음.

1) 완전통합학생 중 지체장애(뇌병변)학생 3명의 경우, 공정한 평가를 위한 수행평가 시 대체평가 마련, 학교생활 적응 지원, 부모상담, 보조인력 관리, 담임교사 지원 등 관련 현안이 무척 많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없이 2018년도 신규 임용된 특수교사 1인이 이 모든 사안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임.

2) 완전통합학생이지만 이들의 장애특성 및 개별적인 필요와 더불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들을 다루어야 하다 보니 이미 학급 정원이 초과된 8명의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준비와 생활지도를 위한 절대적 시간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

나. 특히, 완전통합학생 중 정서장애학생 1명의 경우, 사회성 기술 부족, 남녀 성의 차이 및 인식 부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급생활과 교우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적 지원을 요구하는 등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성기술교육을 진행할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등 전문인력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2. 요청 내용

가. 과다한 완전통합학생 배정에 따른 체계적 교육 지원 요청: 특수학급입급학생뿐만 아니라 완전통합학생 총 18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사안들을 특수교사 1인이 모두 다루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입급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과다한 완전통합학생 배정에 따른 교육지원청 차원의 체

계적인 교육지원 대책 마련 및 실질적인 지원 요청

나. 정서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파견 요청: 특히, 정서장애학생 1명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심리행동 지원 및 사회적 기술교육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인력 파견 요청

과다 배치된 완전통합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요청

ㄱ중학교(2019. 4. 8.)

□ 관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②항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울특수교육 운영계획 2019

추진계획 1-3

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로 교육권 보장 및 학력 신장

추진계획 2-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요청 사유 및 내용

1. 요청 사유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8년 7월3일 본교는 과다 배치된 완전통합학생 교육 지원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과 대책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현재 본교에는 17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완전통합, 특수학급학생수 포함)이 있습니다. 17명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 학생이 4명, 작은 충격에도 골절의 위험이 있는 학생 1명, 안전과 주의를 요하는 지체장애 학생 3명, 총 8명의 지체장애학생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주목하여야 합니다.

다. 본교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육공간과 이동통로가 협소합니다. 따라서 지체장애학생들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속적으로 본교에 학생을 과다배치하고 있습니다.

라. 특수학급 입급학생뿐만 아니라 완전통합학생까지 총 17명. 상당한 인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여러 문제와 사안들을 특수교사 1인이 혼자 감당하는 것은 가혹합니다. 완전통합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원활한 학습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과 생활지원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특수교사가 감당하며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특수학급에 17명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마. 특수학급 담임으로 배치된 특수교사 1인이 완전통합학생의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들을 다루느라 특수학급 운영과 수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지경이고, 이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귀결됩니다.

- 바. 무엇보다도 일의 우선순위로 볼 때, 특수학급을 운영해야 하는 특수학급 담임인 저는 특수학급 학생들의 잠재적 학습능력을 키워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다 배치된 완전통합학생들의 수시로 발생하는 행, 재정적 지원으로 인하여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해도 특수학급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탄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서류업무뿐 아니라 보조인력 관리, 완전통합학생의 지원 등의 업무가 과중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당장 처리해야 할 일 때문에 수업이 소홀해 지다보니 교사로서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고통이 있습니다. 교사가 일에 쫓겨 아이들에게 눈웃음 지어줄 여유조차 없다 보니 학생들은 저에게 "선생님은 늘 바쁘세요~" 라며 아쉬움과 안타까운 눈길로 쳐다보며 저와 이야기 하고 싶은 굴뚝같은 마음을 삼키는 것을 볼 때면 미안한 마음에 자괴감이 들기까지 합니다.
- 사.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정과 열심을 다하면 해결될 거라는 낙관적인 희망으로 견뎌왔지만 이는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 회피일수도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는 무책임한 마음가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요청 내용

가. 완전통합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추가 배치 꼭 필요합니다.

완전통합학생을 지원하고 함께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는 특수교사 추가 배치가 절실합니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1학급에 특수학급 1명의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부담임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완전통합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적 지원, 교과수업, 특수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통해

- 1) 특수학급 운영 정상화, 내실화를 이룰 수 있고
- 2) 17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고
- 3) 17명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고
- 4) 교사도 아이도 따뜻한 웃음이 있는 즐거움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 5) 무엇보다도 특수교사로서의 자부심과 꿈을 가지고 학생들의 진정한 통합과 교육적 성취를 위한 열정과 창의적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교사 추가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의 모든 것들은 위협받고 특수학급운영은 부실해지며, 가장 기본적인 학생들 안전조차도 지켜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인 저는 에너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합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장애·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배우는 궁극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장애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자신들의 잠재적 재능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2019 서울시교육청에서 내세우는 '장애, 비장애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 미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17명을 위해서 특수교사 1명의 추가 배치는 절실하며 비로소 교육의 질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토론문

김미선 (강원 춘천 7초등학교 특수교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 가산초등학교 특수교사 김미선입니다.

19년차이고, 그동안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만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3월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학생의 도전행동으로 인해 교권침해를 당하였고 현재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인정받아 공무상요양 기간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제가 학생에게 공격 받고 폭행당한 일은 올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특수교사들이 그렇듯 참고 견디는 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 천사라서가 아니라 아무리 힘든 일을 교감, 교장선생님, 장학사님께 말씀드려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격하는 학생 개인을 탓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도전행동을 수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밑바탕을 교육시키는 것이 특수교사의 주된 업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버겁습니다.

현재, 아니 꽤 오래전부터 특수학급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힘든 점은 특수학급에 중증장애학생을 포함한 과밀학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40분 수업에 특수교사가 학생당 5~10분 정도 개별화 수업을 하면 그 시간은 꽤 성공한 수업입니다. 특수교육실무원(특수교육지도사), 자원봉사자 등 아무리 특수교육지원 인력이 있어도 수업은 특수교사의 몫입니다. 또한 그 특수교육 지원인력들의 주된 업무는 통합학급의 통합수업 지원이라 특수학급 지원에 많은 시간을 배치하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중 1명이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신변처리, 교실이탈, 수업 중 도전행동이 발생한다면 진행 중인 수업을 멈추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나마 화장실이 특수학급 안에 있으면 뒤처리를 하며 틈틈이 다른 학생들을 눈으로나마 안전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화장실이 특수학급 밖에 있으면 아무리 중증장애학생이 있어도 특수교

사가 교실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을 이탈하는 돌발행동을 하는 학생이 생기면 그 학생을 찾을 때까지 다른 학생의 수업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교실에 다른 특수학급 학생들을 남겨놓고 찾으러 다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 사이에 특수학급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그 감당 또한 특수교사의 몫이 됩니다. 또한 교실 안팎에서 발생하는 도전행동들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을 면밀히 관찰하고 학부모님과도 수시로 상담하며 여러 중재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 학생을 면밀히 관찰하며 도전행동의 원인을 분석할 시간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중증장애학생이 1명 이상 포함된 특수학급 학생 8명을 가르치는 것과 중증장애학생없이 8명을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 수의 과밀학급이지만 학급운영에 있어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중증장애학생은 장애 특성상 통합수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여 특수학급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레 특수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는 더욱 늘어나 주당 28~29시간이 됩니다. 이는 일반 초등교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들어보지 못한 수업시수일 것입니다.

특수학급은 주로 개별화교육과정에 의해 학생의 학습 특성에 맞게 교사가 개별적으로 학생과 상호작용을 진행하다보니 과밀학급에서는 한 학생을 지도할 때, 나머지 학생들이 기다림에 지쳐 도전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인력은 교사가 아니므로 수업 중 온전히 학습지원을 맡길 수도 없습니다. 지원인력에게 수업을 시킨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지원인력을 관리하는 것도 특수교사의 몫이고, 지원인력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이 또한 특수교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인력에게 학생들을 대할 때의 지원 방법을 알려드려도 이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특수교사와 지원인력과의 마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급식시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 다학년을 지도하는 특수학급은 저학년이 급식을 하면 특수학급에서는 고학년 수업을, 고학년 급식시간에는 저학년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됩니다. 같은 시간에 급식을 하더라도 중증장애학생이 있으면 급식시간은 더욱 긴장이 되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저도 작년에 학생의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순간 숨을 쉬지 못하는 학생에게 긴급처치를 1~2번 한 경험이 있기에 급식시간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더욱이 과밀학급에서는 교사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마음 편히 갈 수 없어 정말 급할 경우에는 교무실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거나 복도에 지나가는 아무 교사에게 특수학급을 부탁하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힘든 점은 특수학급 도전행동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학생들의 크고 작은 도전행동들은 특수교사가 가정, 그리고 통합학급 교사와 연계하여 해결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대부분의 특수교사는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며 많은 학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느리지만 학생들의 작은 변화를 보면서 특수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급을 운영합니다. 허나 현재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라는 대단히 모호하고 위험한 프레임에 갇혀있습니다. 도전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다칠 것 같아 학생을 뒤에서 안으면 신체적 학대가 되고, 신체적 접촉을 피하게 되면 방임이 되고, 위험한 상황을 학생에게 설명하며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들 중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을 부모님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도를 지나친 학부모님들은 학생의 말만 믿고 교사를 판단해 버리고 그것이 법적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생긴다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리기에 아동학대에 해당될 만한 오해의 소지가 될 행동을 피하게 되며 자연스레 도전 행동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학생의 몸에 멍이 들었을 경우, 특수교사가 그 원인을 알고 학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은 상처일 경우 원인을 모를 경우도 있는데 학생의 작은 상처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경우에는 매일 등교 시, 학생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관찰하고 작은 상처라도 있으면 사진을 찍어놓고 학부모에게 민원이 들어오면 등교할 때 이미 상처가 있었음을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을 때면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현실에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또한, 특수교사가 교육지원청의 행동중재 전문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중재지원단은 학생을 관찰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 모니터링 한 후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런 과정이 학생의 도전행동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수교사가 중재안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특수교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전문단의 인력 부족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아동학대 의심으로부터 해방된다면 특수교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도전행동에 대해 연구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든 것은 앞서 잠깐 언급한 해결하기 힘든 민원들입니다. 인천 학산초 김동욱 선생님도 사망하시기 전 학생 집 가까이까지 가서 등교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 학부모로부터 교문에서 본인의 차가 오면 차문을 열고 학생을 데리고 교실에 들어갈 것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교문에 미리 나가 언제 등교할지 모르는 학

부모의 차를 기다려 문을 열어드릴 수 없음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의 뜻은 그 당시 완강하셨습니다. 근무 시간 뿐 아니라 늦은 저녁, 주말 등을 개의치 않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주는 교감, 교장선생님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민원의 내용을 불문하고 특수교사의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교감, 교장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치 특수교사의 역량이 부족하고 미흡하여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몰아버리면 특수교사는 무기력해지고 삶이 무가치 되면서 서서히 벼랑 끝에 홀로 서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특수학급을 운영하기 힘든 것은 넘쳐나는 특수학급의 행정업무입니다. 특수학급 공문처리는 대부분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개인 정보를 학교 행정사님과 공유하기가 힘들고, 특수학급 업무 특성상 특수교사가 공문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문 처리는 특수를 담당한 행정사님께 맡기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지만 현실은 붙임 파일을 모두 작성해서 행정사님께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으로 특수교사가 공문을 거의 작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문이 너무나 많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언제 개별화 수업준비를 하고,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하며, 주당 28~29시간의 수업을 마친 후, 학부모 상담을 하고 문제행동 중재안을 마련하며, 쏟아지는 공문을 처리해야 하는지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현실은 특수학급 관련 업무만 주어진다면 다행인 상황입니다. 행정실이나 다른 담당교사가 처리해야 할 업무도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단어만 포함되면 특수교사의 업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특수교사의 업무가 아니라 해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부모 상담, 문제행동 수정, 수업 준비, 공문 처리로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거기에 특수학급 학생 방과후 수업까지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늘봄학교를 포함한 방과후 활동 관련하여 왜 특수학급 학생은 특수교사가 처리해야 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주어진 업무를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신 인천 학산초 김동욱 선생님을 대신하여, 전국 곳곳에서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후배 교사 및 동료 교사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다음의 사항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 법적 인원을 현행보다 낮추어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때 중증장애학생이 포함된 경우를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오.

특수학급 지원인력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특수교사의 정원을 늘려주십시오. 특수교사 총원 없는 지원인력 확대는 특수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불법 녹음기,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부당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특수교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별화 수업준비 및 행동중재 연구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끝없는

행정업무에서 구해주십시오. 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원을 늘리고 공문 간소화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증학생이 있거나 전학생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특수학급 감축에 있어 융통성 있게 유예기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기준인원을 초과하는 학급(전학생) 또는 중증장애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 학기 중이라도 정원의 기간제 교사 충원을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문제행동(도전행동)이 발생하는 위급상황 시에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특수교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결강사 제도를 일반교사 수준으로 확대하여 아프면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부득이 특수교사가 교육지원청에 어떠한 도움을 청할 때, 외면당하지 않을 제도적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닌, 해당 규정이 없어도, 신청기한이 지났어도, 교육 현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목숨과 맞바꿀 때 비로소 바뀌지는 행정이 아닌,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통로 하나 정도는 마련되어 더 이상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토론문

박병찬 (경기 초등학교 일반교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토론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 차 장애인 교사입니다. 통합 학급 담임을 3년 정도 하였고, 지금 현재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제가 맡고 있는 반 6개 중 절반 이상이 통합학급입니다.

저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통합교육을 받아온 살아있는 통합교육의 증인이자, 통합교육을 거쳐이제는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학령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지원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통합교육이라 지칭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통합학급 교사를 전적으로 대표할 순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통합학급 교사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급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과밀학급 문제입니다.

통합학급을 맡게 되면 20여명 정도의 비장애학생들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동시에 지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전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에 통합학급 교사는 늘 시간과 에너지의 부족을 느낍니다.

여기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행정업무, 학부모와의 수시 소통, 각종 민원 대응까지 더해져 통합학급 교사의 육체적, 심리적 소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합교육 현장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독서 골든벨 행사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한 명이 첫 문제에서 탈락하자 갑자기 심한 돌발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행사는 중단되었고, 다른 학생들은 행사를 즐기는 대신 친구를 진정시키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날의 활동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오히려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순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한 통합학급 교사는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한 후, 자연스러운 교육활동조차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농담 한마디, 아이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조심스러워졌고, 이러한 긴장감으로 인해 그 교사는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통합학급에 11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중 6명이 특수교육 대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지요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사 등의 여러 지원인력이 교실에 함께하다 보니, 마치 365일 공개수업을 하는 것 같은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특수교사분은 한 수업에 특수학생이 3명만 되어도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학급 교사들은 특수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학생, 다문화 학생, 학습부진아, 경계성 학생 등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들을 모두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학급의 학생 수를 1~2명 정도 줄여주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모든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어, 이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극심한 공격(돌발) 행동 학생이 있는 학급만이 겨우 조정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둘째, 통합학급 교사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통합학급 교사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전문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겨우 60시간짜리 통합교육 연수 하나로 장애 유형별 교육방법, 생활지도 전략, 위기상황 대처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버겁습니다. 또한 교과별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에 그저 '있다'는 것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부실한 지원체제로 인한 통합교육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보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은 하루 1~2시간에 불과합니다. 하루 1~2시간의 지원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 학생의 경우 전일제 보조인력 배치가 절실합니다. 보조인력 없이 홀로 버텨야 하는 아이들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또한 특수교사와의 협력체계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합학급에서의 코티칭, 행동중재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는 특수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수교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통합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는 통합학급 지원을 '해야 할 일' 목록에만 남겨두게 되고, 통합학급 교사가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이런 상황은 통합학급 교사에게 특수교사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특수교사는 통합학급 교사가 특수아동을 맡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등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여 두 교사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특수학급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해 본 통합학급 교사는 특수교사도 통합학급 담임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는 부담임이나 전담교사 없이 실질적으로 주당 26시간이 넘는 수업을 하기도 하고, '장애'나 '특수'라는 단어만 붙으면 배정되는 업무와 통합교육 인력관리까지 도맡아 하며, 특수 학생의 하교 지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쉬는 시간조차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교사들의 의지 부족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넷째, 통합교육 행정 시스템의 비합리성입니다.

현재 통합교육 시간 배정은 학부모의 요구나 특수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반 시간표와 맞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하루에 1~2시간만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통합학급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통합학급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훨씬 길어집니다.

통합학급의 의사결정 구조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 시간이나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부모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학부모가 원하면..."이라는 말 한마디에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상태와 관계없이 완전통합을 고집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나이스 시스템상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관련 모든 행정업무 권한이 통합학급 담임에게만 설정되어 있어, 특수학급 수업의 평가 결과를 특수교사로부터 전달받아 통합학급 담임이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통합학급 적응 기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 운영도 통합학급 운영을 위태롭게 합니다.

현재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2주간 모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학급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교사가 새로운 학급 학생들을 파악하고, 학급의 기본적인 규칙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급 운영의 기초를 다져야 할 이 시기에 일괄적인 통합 운영은 교실 전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혼란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는 바로 '부모교육'입니다.

현재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의 요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부모의 의견이 우선시되어, 아이의 장애 정도나 유형에 맞는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완전 통합을 고집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 됩니다. 물론 교육적 판단이 교사가 반드시 정확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통합교육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을 말했더니, 한 특수교사께서 "왜 특수아동의 거취를 제3자가 결정하나요?"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순간 "부모의 선택이 언제나 장애 자녀를 위한 것일까요?"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교사인 저로서는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제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를 얻은 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과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주실 때마다 부모님은 "너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적의 한마디로 제 의사와 선택은 무시되었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대학병원 상담을 받아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부모님의 행동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가 오기까지 저는 약 20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장애를 얻었을 당시, 부모님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받으셨더라면 제가 고통받은 세월을 조금이나마 단축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장애가 없는 자녀도 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물며 올바른 부모교육 없이 장애 자녀를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제 언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 명의 교사가 20명이 넘는 일반 학생들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동시에 지도하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0명 이하로 줄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치된 경우 학급 정원을 자동으로 감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학교 차원에서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1~2명 정도 조정해 같은 학년 다른 학급으로 배정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 방식처럼, 통합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 정도에 따라 한 명당 더블 카운트로 계산하여 정원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통합학급 담임 경험을 이동점수에 반영하고, 교원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수업시수와 행정업무를 줄이고, 승진 가산점을 인정하는 한편, 담임수당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학급 담임 경험자에 대한 전보 우대 정책으로 통합학급 담임을 희망하는 교사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통합학급 전보 우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통합학급이 많은 학년을 지원하는 교사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둘째, 통합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 지원인력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전일제 보조인력 배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보조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장의 한 사례를 보면, 통합반 보조인력으로 배정된 사회복지무요원이 수업 중 계속 휴대폰 게임을 하여 주변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방해했고, 결국 특수학급 대기 인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특수교육 실무자들은 장애 학생 케어, 통합학급 지원 등 본연의 업무를 거부하고, 이 순간에도 수업 중에 휴게 시간에 달라고 총파업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특수교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동중재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특수교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특수교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수학급에 부담임과 전담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3명 이상의 특수학급당 최소

2인 이상의 특수교사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통합학급 관찰과 지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수학급 정원 감축을 법제화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법정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신속하게 학급을 증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을 통해 특수교사가 통합학급 수업의 참관과 행동중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의 결단으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추가 배치,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특수교육 협력 강사 운영 등을 통해 특수교육 인력을 확대하여 통합교육의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합교육의 행정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에게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부모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교육 결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과 함께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시간과 완전통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교사의 교육적 평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학부모-담임교사-특수교사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는 소통 채널이 부족하여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많은데,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사의 나이스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특수교사는 학생들의 출결, 성적, 생활기록부 작성에 제한을 받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여 특수교사가 직접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학생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3월 학급적응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획일적 운영으로는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학생 개인의 장애 정도와 발달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시간 배정이 필요합니다.

한편, 특수교육이 필요함에도 학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혼자서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보조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통합교육 시간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경직된 운영으로는 효과적인 통합교육이 어려우므로,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부모 교육과 통합교육 예산 지원에 대해, 그리고 제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제안한 개선 방안들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면 통합학급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편성이 필수적입니다. 실질적인 예산 없이는 아무리 논의해도 현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통계연보가 보여주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비율에서 우리나라는 0.72%로, 터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만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늘봄교실과 AI 교과서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의 일부만 통합교육 지원으로 전환해도 현장에서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도 시급합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학부모가 자녀의 장애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검사조차 거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계성 판정이 나오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기에 막대한 치료비와 특수교육비까지 더해집니다. 특히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거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이 모든 부담을 온전히 가족이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모든 부모님이 장애 이해 교육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중에라도 장애를 직면하게 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학급 수당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그들 눈에는 '추가 수당'의 대상이었다는 생각에 때때로 울컥하기도 합니다.

위기관리 학생, 다문화 학생, 부진아 학생을 맡는다고 해서 수당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은 힘들다며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 학생과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경기도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제도적 개선을 원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수당'으로 환산되어야 할까요?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통합교육의 진정한 의미가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진정한 통합교육의 모습입니다.

이제, 제 교실에서 있었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중증 장애를 가진 이 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자리에 앉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보조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이는 자신만의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는 순간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교실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모든 아이들이 하나 되어 진심으로 그의 성취를 축하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순간들이 통합교육이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배우고, 서로의 작은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배움이 있을까요?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는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더 이상 개별 교사의 열정과 희생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인력 지원, 충분한 예산 확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 이것이 바로 지금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정부와 교육청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교사 개인의 희생에 기대지 말고,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교육청의 결단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토론문

그 위기상황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로!

김 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1. 과밀학급 및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개별화교육’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밀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은 언감생심 꿈꿀 수 없습니다.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학생에 대한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데, 과밀학급이 아니라 법정정원을 준수하여 초등학교 1개 특수학급 학생수가 6명이라 하더라도 개별화교육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각기 다른 학년의 각기 다른 학습 경험과 특성과 능력을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 6명을 특수교사 한 명이 6개의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1년을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학부모로서 ‘학생의 배울 권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육에 대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과밀학급의 경우 수업시수 등의 문제로 개별 학생의 필요에 의한 특수학급 수업이 아니라 (통합학급에서 어려운 과목 수업시간에 특수학급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눈높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정해진 특정시간에 특수학급 수업을 ‘배당’받습니다. (‘매일 1,2교시는 무조건 특수학급 수업’) 이런 경우 통합학급 수업에서의 연속성도 사라지고 교육과정의 결손도 생깁니다.

과밀학급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특수학급 미설치교 문제는 교육부 혹은 시도 교육청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2. 전일제 특수학급 배치: 학부모의 요구(‘특수학교에 못갔으니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에서처럼 해 주세요’)가 있어서 혹은 학교 내 요구 때문에 (‘통합학급에서 수업방해가 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합니다’) 전일제로 특수학급에 학생이 배치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학생의 입장은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우나, 역시 이 경우에도 개별화교육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 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나 특수학급에서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전일제로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이 있다는 의미는 특수학급에서의 다른 학생의 개별수준별 수업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는 전일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학생의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3. 주당수업시수문제 및 업무지원팀 부재: 과도한 수업시수와 업무지원팀의 부재로 인한 업무 과부하는 역시 특수학급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일반교사들이 교과전담교사 및 강사 등의 지원으로 수업시수를 줄이고, 업무지원팀이 행정업무를 덜어가는 시간에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준비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특수교사는 이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특수교사는 이 모든 상황을 감내하면서 양질의 수업 준비가 과연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특수학급 수업을 넘어 통합학급 수업을 '협력'해서 준비해 주십사 요구할 수 있을까요?

4. 생활지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지도는 특히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학교 현실에서는 학교공동체의 고민은 사라지고 '특수교사'가 떠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나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지원을 받기는 어렵거나 전문성이 의심됩니다. (인천교사 사례에서도 마찬가지) 현장의 상황이 더 나아지기 전까지 소위 문제행동이나 돌발행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고 고립되고 급기야 가정으로 분리됩니다. 문제행동을 줄여나가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기 급급해 보입니다. ('당장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일단 좀 데려가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분리되는' 학생의 배움은 어떻게 됩니까? 선량한 다른 학생의 배움 권리를 침해했으니 그 '벌'로 당사자의 배움 권리는 침해당해도 되는 걸까요?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라면 충분히 교육받고 개선되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 어른들의 부족함 때문에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5. 지원인력 채용 등의 문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도 채용 자체의 어려움으로 공백 ('수련활동 남자 지원인력은 학교에서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사람을 구해 오시면 예산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인력 구인난), 사회복지무원의 경우 '역량미달의 문제'로 교사 또는 관리자들이 기피,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여 공공연히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학교에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원인력 구인난을 이유로 학생에게 *교육활동 참여 포기 강요* 혹은 *권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존수영, 현장체험학습, 소규모테마여행 등)

6. 교육기관 구성원들의 장애인식: 결국 장애학생들을 학교구성원으로 보는가, 어쩔 수 없이 떠맡은 이질적 존재로 보는가의 문제이며, 후자의 경우 학생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의 일할 권리도 존중받지 못하고 보장받지 못합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

■ 1. 경기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경기도는 전체 학생 수의 29.4%,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26.6%를 차지함. 전국의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년 103,695명(1.78%), 2023년 109,703명(1.92%), 2024년 115,610명(2.03%)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20년 95,420명, 2021년 98,154명으로, 5년 새 학생 증가율은 21.2%에 달함. 특히,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22,571명, 2024년 28,581명으로 5년 새 26.6% 증가율로 전국 증가율보다 5%p 이상 높은 현실임

■ 2.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현장의 긴급한 요구인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과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10월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약 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임. 4개 분야 11개 과제로 올해 1년 차 목표를 100% 완수했음 [참고자료]

①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초·중학교 과밀학급에 특수교사 188명, 유치원 연령별 통합교육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42명, 특수학교 유·초 특수교사 59명을 추가배치해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했음.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증원, 특수교육협력강사 521명 운영. 돌봄담당교사(시간제근무 기간제) 배치 희망교 전부 배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특수학교 대상 방학 중 맞춤형 돌봄 및 교육 프로그램 94학급 운영 등

○ 기간제 특수교사 증원

- 과밀 특수학급 해소(추가배치 교사 188명)
 - 특수학급 1학급 당 특수교육대상자 초과 배치(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시 교사 추가배치
- 유치원 연령별 배치(추가배치 교사 42명)
 - 특수교육대상자가 유치원 특수학급에 2개 연령 이상으로 배치 시 교사 추가배치
- 특수학교 1교실 2교사제(유·초 특수교사 증원 59명)
 - 학급당 교사 2명 배치하여 교수·학습 질 개선

○ 협력강사 제도 신설

-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협력수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인력(교원자격증 소지자)을 일시적으로 활용
- 운영내용
 - 근무시간: 주당 20시간 주2~5일 시간제근무
 - 주요역할: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협력수업 실시

②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확대)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미래형 특수교육 분야는 ▲특수학교 36교 디지털 활용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 개발 ▲특수교육 공동체에듀테크 교육활동 역량 강화로 장애학생의 미래사회 적응역량 강화 지원 등

③ (경기 특수교육원 건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강화) 행동중재 특화형 경기 특수교육원 건립 기초용역 완료. 경기형 행동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행동지원 신속대응팀 운영 ▲가정-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종합지원팀을 잇는 4단계 맞춤형 행동지원 시스템 구축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 확대 ▲교육공동체 행동지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등

④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장애학생과 교육 약자의 교육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경기 교육정책 전반에 장애학생과 교육 약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교육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별 기본계획 작성 시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체크리스트 의무 삽입 내용 전 기관 시행 중. 특수교육 서포터즈를 통해 기본계획 전수조사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

○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우수사례

진로직업과	고졸 채용박람회 ‘달고나’에 특수학교 중·고, 전공과 과정 학생 참여 통해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 취업정보 제공
생활인성교육과	학부모 연수자료 동영상 강의 수어통역 제공, 연수자료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배포함으로써 장애학생 및 학부모 자료 접근성 제고
지방공무원인사과	장애인 후보자 장기간 임용대기 없이 생활근거지 우선 배치
평생교육과	장애학생 수업지원을 위한 빅북, 팝업북 지원
학교안전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위해 특수학교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우선 구축
교원인사과	장애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기구 지원 확대,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지원, 근무지원자료 개발 등
정책기획관	‘경기교육열린심포지엄’ 등 홍보물에 경기교육의 정당한 주체로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장애학생 이미지를 포함 제작·배포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장애학생 위한 드로잉, 일러스트, 코딩 등 온·오프라인 42개 강좌 추가 개설
의정부 〇〇초	‘놀이한마당’ 계획 단계부터 장애학생의 고려, 지원인력 1:1 배치하여 소외없이 안전한 활동
연천 〇〇초	안전교육체험관 견학시 장애학생 보조인력 및 전문지도인력 배치하여 빠짐없이 교육활동 경험
성남 〇〇초	‘학생체력증진 기본계획’, ‘운동회 계획’ 등을 통해 장애학생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육활동 순서 변경 및 최대한 근접한 교육 목적 달성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수정 보완하여 운영 (예: 50m 달리기 출발선 조정 등)

■ 3. 제언

① (학생수+학급수 반영 기간제교사 정원 배정) 현재 과밀학급 발생의 원인은 공간 부족이나 인력 관리 등의 사유로 특수학급 신증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는 ‘장애차별’에 해당한다는 관련 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등)을 포함한 강력한 권고 공문을 유관 부서와 관내 학교에 시달하여 협조를 유도한 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특수교육 현장 곤란의 주원인으로 특수교사 부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기준인원 초과 시 교사가 추가배치 되어야 함에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학생수에 따른 교사 법정 배정인원과 학급수에 따라 배치하는 실제 배치인원의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문제임. 기준인원 미달 학급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정 배정인원을 지키지 못하는 배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교사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이므로 법정정원과 실제 배치인원의 차이를 반드시 메워주어야 함

따라서 학생수 뿐만 아니라 학급수를 반영한 배정이 필요하고, 정확한 학생수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변적 대처가 가능한 현실적인 기간제교사 정원이 필요함. 교육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전 단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정원 확보 노력을 확대해야 할 것임

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제도 개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은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많아 정책 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하지만, 장애교원 수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교육청은 막대한 규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404억원)하는 바, 장애학생들을 위한 질 좋은 진로·직업 교육 예산이 오히려 축소되는 역효과가 나고 있음

장애교원 부족은 교육청의 정책 수행 노력이나 의지 미비보다는 구조적 원인에 기인함.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배출하는 예비 장애교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선발하지 못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협의를 지속하고 있음

특수교육 현장 여건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타개책 중의 하나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장애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등에 활용하여 기금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함.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는 거시적 안목 접근으로 진정한 장애학생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함

<끝>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2024년 추진성과 및 2025년 추진계획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I 목적

-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1차 연도인 2024년의 연차별 목표 대비 달성 및 현황 점검
- 사업별 목표달성도를 확인하여 중점 추진사항 관리
- 계획 완수를 위한 사업 추진 동력 유지 및 차년도 사업 준비

II 주요 현황

- 2024년 추진현황 점검
 - 추진현황 점검 결과 14개 사업 연차별 목표 달성(100%)

※ 사업분야별 추진현황

사업분야	사업 수	완료 사업 수	달성률	비고
특수교육인력 및 돌봄확대	7	7	100%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3	3	100%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3	3	100%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	1	1	100%	
계	14	14	100%	

□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

분야	항목	2024 추진실적	2025 추진계획
1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확대	1-1 특수교사증원	-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증원	- 특수학급 신·증설로 과밀 해소 - 교사증원 협의 및 기간제 채용 공정성 제고
	1-2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증원	- 특수교육지도사 73명 증원
	1-3 별도 인력지원 (협력강사)	- 협력강사 521명 운영	- 협력강사 500명 배치(예산 내 추가 운영) - 협력강사 역량강화 연수
	1-4 지원인력 제도 내실화 및 안정화	- 지원인력 연수 시행 완료	- 지원인력 연수 확대 - 특수교육지도사 대체인력풀 운영
	1-5 특수교육 종일반 담당교사 증원	- 증원 희망교(70명) 배치 완료	- 수요조사에 따른 종일반 담당교사 100명 배치
	1-6 특수교육 종일반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 종일반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250학급)	- 종일반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속 지원 (250학급)
	1-7 특수학교 방학중 돌봄 지역사회 위탁	- 여름방학 운영 완료(94학급) - 겨울방학 운영 예정(100학급)	- 지역사회 확대 운영 지원 - 교육지원청 주관 운영 전환
2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조성	2-1 Si기반 성장 맞춤형 플랫폼 구축	- 기초연구 수행 완료	-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의 교육플랫폼과 연계 추진
	2-2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 모델 개발	- 특수학교 36교 모델개발 완료	- 특수학교 개발모델 특수학급 확산 (50교 공모 선정)
	2-3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 강화	- 거점교육지원청(6청) 운영 - 선도교원 200명 양성	- 선도교원 심화연수 추진 - 지역 수요에 따른 맞춤형 자율 연수 운영
3 특수교육 원설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3-1 특수교육원 건립	- 기초연구 수행 완료	- 특수교육원 설립 세부계획 - 투자심사 및 입법 정비
	3-2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 맞춤형지원	- 행동지원 시스템 운영 -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 4단계 맞춤형 행동지원시스템 운영 - 장애학생 행동지원 플랫폼 시범 운영
	3-3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 행동지원 전문인력 140명 양성	- 지역기반 행동지원 전문가 인력풀 구성 - 교육공동체 행동지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4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	- 지표개발 완료 -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 결과 반영 정책단위 보편적 설계 강화	

Ⅲ 사업분야별 추진실적 (상세)

구 분	주요 추진실적
<p style="text-align: center;">1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확대</p>	<p>1-1 특수교사 증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밀 특수학급 해소(추가배치 교사 18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학생수(유4명, 초·중6명, 고7명) 초과 학급에 교사 추가배치 ○ 유치원 연령별 배치(추가배치 교사 4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특수학급에 2개 연령 이상의 학생배치 시 교사 추가배치 ○ 특수학교 1교실 2교사제(유·초 특수교사 증원 5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교사 2명 배치하여 교수·학습 질 개선 <p>1-2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지도사)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증원, 총 1,344명 배치 <p>1-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별도인력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협력강사 521명 배치·운영(당초 계획 인원 500명, 4.2%초과 달성) <p>1-4. 특수교육 지원인력제도의 내실화 및 안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인력풀 운영, 사회복무요원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특수교육 서포터즈) ○ 특수교육지원인력 통합직무연수(2회), 회복탄력성 강화 연수(1회) 실시 <p>1-5. 특수교육 종일반 담당교사 증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조사에 따른 모든 희망교에 특수교육종일반 운영 담당교사 추가배치(70명) <p>1-6. 특수교육 종일반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교 공모를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250학급) ○ 종일반 학급당 특기적성 운영비 증액(학급당 200만원 → 600만원) <p>1-7. 특수교육 방학중 돌봄 지역사회 위탁 운영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 여름방학중 돌봄 지역사회 위탁운영 (29교, 94학급 운영) ○ 특수학교 겨울방학중 돌봄 지역사회 위탁운영 (38교, 100학급 운영 예정)
<p style="text-align: center;">2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조성</p>	<p>2-1 AI 기반 성장 맞춤형 플랫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디지털 활용 기초수준 및 역량 측정 연구 수행(12월 최종보고회) <p>2-2. 미래형 디지털 활용 특수학교(급) 교수·학습 모델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별 학생 특성에 맞는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모델 개발 완료 <p>2-3 에듀테크 맞춤형 교육활동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운영(25개 교육지원청, 6개 거점 교육지원청) ○ 에듀테크 선도교원 200명 양성

구분	주요 추진실적
<p style="text-align: center;">3</p> <p style="text-align: center;">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p>	<p>3-1. 경기특수교육원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목적 및 타당성, 직제, 사업구조 등 기초연구 완료 <p>3-2. 행동중재 신속대응팀 운영 및 4단계 맞춤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별 행동 중재 신속대응팀 운영(25개 교육지원청) ○ 가정-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종합지원팀 4단계 맞춤형 행동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의료기관(한서중앙병원)과 연계한 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강화, 담당교사 연수 실시 <p>3-3.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및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행동지원 전문가 140명 양성 (경력 3년 이상의 특수교사 대상 150시간 집중연수) ○ 교사, 지원인력, 장애학생 가족 등 교육공동체 대상 행동지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6회)
<p style="text-align: center;">4</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p>	<p>4. 무장애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운영 안내(2회)로 정책 수요자의 범위 확대 및 정책 실행 단계의 보편적 설계 반영 강화 ○ 보편적 설계 우수사례 공모

IV 분야별 평가 (특수교육 서포터즈 정책 평가)²⁾

□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1년차(2024) 총괄평가

- 수년간 누적된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
- 활성화 3개년 계획의 각 분야는 특수교육의 기본적인 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돌봄, 지원서비스 개선 등이 연계됨으로써 특수교육의 발전을 관통하는 일련의 사업들로 구성됨
- 계획 발표 후 계획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체계적으로 뒤따라 이어지는 것이 가장 높은 평가 포인트
- 1차 연도 종료 임박 시점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에서 구체적 성과 달성

2) 경기특수교육 정책 검토와 성과 분석, 관련 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추진을 목적으로 학부모, 교사(관리자, 일반교사 포함), 교수, 교육전문직, 행정공무원 등이 참여, 10개 분과 100명으로 구성된 경기특수교육 서포터즈(With US)를 통한 정책 평가 결과

□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 특수교육 인력 확충

- 특수교사, 종일반 담당교사, 특수교육지도사, 협력강사 등 인력 충원으로 교육여건 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즉시 체감
- 매년 반복되던 지원인력 배치 관련 민원 대폭 감소
- 교사와 협력강사의 협력수업으로 학생별 맞춤형 수업 가능

※ 특수교육인력 확충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 교사 및 지원인력 1인당 학생수 감축 현황

연도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명)	지원인력 1인당	
		학생수(명)	학급수
2023	4.88	23.3	4.00
2024	4.55(△0.33)	20.9(△2.4)	3.6(△0.4)

-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개선 사례

- 지원인력 배치 현황이 가장 열악했던 지역으로 지원인력 1인당 학생수 36.2명에서 23.9명으로 개선(△12.3명)
- 담당자 인터뷰 “지원인력 배치 관련 민원 현저히 감소”
(지원인력 배치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 23건 → 2건)

- 협력강사의 협력수업 결과 주요 사례

- 교사자격을 소지한 협력강사의 밀착지도로 장애학생의 통합학급 적응과 학업성취도 향상
- 학습격차가 심한 통합학급에서 학생 수준별 지도로 장애학생의 원활한 수업 참여
- 교사와 협력강사의 지속적인 지도방안 협의로 심도있는 개별화 교육계획 마련
- 협력강사와의 충분한 논의로 문제행동 학생 행동지원의 적절성, 효과성 향상

○ 특수교육 돌봄 확대

- 정부의 돌봄 확대 정책에 따라 장애학생이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부응하는 정책으로 **현장과 학부모의 호평**
- 종일반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해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질적·양적 확대 등 모든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
- 방학중 돌봄을 포함한 돌봄에 대한 요구가 확인된 만큼 지역사회나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분야의 다른 현안에 비해 미흡한 편이었음을 감안하여, 학교현장의 즉각 효과를 위해 특수교사-대학연구진-서포터즈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며 정책 시행 중
- 미래형 디지털 활용 교수·학습모델 개발은 학교별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교와 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 추진
- 물적 지원과 더불어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

□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 전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1/4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경기 특수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행동지원을 총괄·집중지원을 위한 조직적 기반으로 특수교육원 설립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의 중증화가 높아지는 현실에서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전문기관 협력 등은 매우 시의적절
- 학생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을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 필요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

-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운영계획 발표 이후 경기도교육청 정책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자료에서 정책 수요자로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고려가 발견되는 유의미한 결과

